

## 다나카 주조 본점

다나카 주조는 1899년 창업 당시 오타루에 50 채 있었던 사케 양조장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다나카 주조는 이 도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케 양조장입니다. 1927년 창업 당시 양조장이 있던 곳에 다나카 주조 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목조 건물에는 손님과 가게 앞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 처마가 설치되어 있어 20세기 초에 오타루에 지어진 점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나카 주조 본점에는 당시 사용되던 점포의 간판과 20세기 초부터 판매된 양조주의 광고 등, 손으로 조각한 목제 간판이 많이 장식되어 있어 레트로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1944년 전시 체제하에서 오타루의 주조는 공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되었고, 다나카 주조는 소매에 한정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1996년에 다나카 주조점은 오타루의 상업 중심지 남쪽에 있는 3채로 이루어진 석조 건물인 오카자키 창고를 구입하여 사케 양조업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나카 주조에서는 술을 빚을 때 오타루에 있는 덴구 산의 용수와 핫카이도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점과 양조장에서는 무료로 사케를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